전주 신산업 이끌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용역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전주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은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관계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용역의 조사 대상은 조성을 검토하는 225만㎡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 183만㎡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 22만㎡ △영화산업특화단지 10만㎡ △자원순환특화단지 10만㎡ 등 총 4개의 일반 및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적·제도적·인프라 측면에서 최적의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산업단지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는 4개 신규 산업단지의 각각의 특성·규모·단지간 거리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 개발 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사업화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방식, 입지타당성 등을 도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중앙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승인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간에 걸쳐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과 신산업 육성,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검토해왔다.

한병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확장 시켜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37주년 6 · 10민주항쟁 기념식

전북자치도, 8일 풍남문광장서 도민문화제와 함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8일 풍남문광장에서 1987년 6·10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전북도민의 참여의지를 고취하고자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도민문화제를 개최한다.

먼저,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전북기념식'이 오는 8일 오후 7시 풍남문광장에서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 주제로 열린다.

이 날 기념식에는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 회원들과 전북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식전공연으로 전주시필봉농악동호인연합회 회원들이 농악판굿에 이어 국민의례, 개회사, 기념사, 성명서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도민문화제에서는 청보리사랑 여성농민노래단 단원인 오은미 전북도의원, 정환영 포크가수, 송희만 가수, 김용진 가수의 노래공연, 박진하 소리꾼과 김 연 도립국악원 교수의 국악가요와 판소리 공연, 이석환 이사장의 시낭송, 김지훈 대금연주자의 연주, 박준석 성악가 공연을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아침이슬' 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풍남문광장에서 전북5·18민중항쟁~6·10민주항쟁 사진전시회, 5·18민중항쟁 최초희생자 이세종열사 추모전, 통일열사 조성만요셉 유서 문정현신부 서각순례전시 '마지막 글을 새기다' 전시회가 열린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4·19혁명의 주역 김주열열사, 5·18민중항쟁 최초 희생자 이세종열사는 전국적인 항쟁의 상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였다. 앞으로 전북특별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관리노동자 · 입주민 모두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만든다

전주시 공동주택 상생문화 선언식 개최

전주시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3일 CGV 전주고사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신유정 전주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공동주택 관리업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이 쾌적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전주시 공동주택 상생문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시의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인권 및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상생 선언문에는 입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행복한 아파트 조성을 위해 각 주체가 서로 노력하고, 시는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주지역 32개 공동주택 단지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공동주택 선언문을 별도로 단지 내에 비치해 협력과 소통의 의미를 입주민들과 공유키로 뜻을 모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노동자는 서로 상생하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간혹 폭언과 폭행, 갑질과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상생문화 선언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교육 및 예산지원 등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3일 CGV 전주고사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신유정 전주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공동주택 관리업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과 관리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전주시 공동주택 상생문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유정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노무 활동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문화유산야행' 성황리 개최

전주시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전라감영,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4 전주문화유산야행'을 개최했다.

시는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목표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의 야행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야행을 위해 올해는 '문화유산 전주마블'이라는 이색적인 게임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제시했다.

'문화유산 전주마블'은 전주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형 보드게임으로, 전주문화유산야행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주의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야행에서 유료로 진행된 사전예약 프로그램의 경우 예약 당일 전석 매진됐으며, 특히 전주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경기전 좀비실록'은 예약 개시 1분 만에 총 320명분의 티켓이 전부 매진되며 '흥행 보증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전 광장에서는 문화유산 콘서트 '풍류 한마당'이 펼쳐져 축제 현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1부에는 마술쇼와 버블쇼가 동심을 사로잡았고, 2부에는 록과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콘서트가 마련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풍남문에 마련된 대형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문화유산 환상 낙서장'은 리싸이클링 크레파스를 활용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올해 야행에서는 △전라감영 관찰사에게 전주 역사에 대해 듣는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전주한옥마을 역사 해설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 △지역 전통주 이벤트 '문화유산 풍류 한사발'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3일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293건이며 전북에서는 총 5건이 발생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은 대부분 전기적 요인(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등) 234건, 기계적요인(과열 과부하, 노후 등) 22건, 부주의(담배꽁초 등) 18건, 미상 16건, 기타 3건 순으로 조사됐다.

화재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단일 전선 사용 및 전선 훼손 여부 확인 △실외기는 벽체와 1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품 보관 및 흡연 금지 △먼지·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등이 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실외기 상태와 전선 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또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외기 주변에서 금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